

경제 소득따라 기대수명 6년 차이난다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기대수명, 소득 상·하위 6.6년 차이 "경제적 불평등에 사망률 격차 증가"...건강수명 차이 11.66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기대수명이 6년, 건강수명은 11년 넘게 차이났다. 경제 소득 차이가 수명 및 건강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보험연구원의 '고령화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국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16년 기준 소득상위 20%(85.5세)와 하위 20%(78.9세)의 기대수명이 6.6년 차이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기대수명 차이는 더욱 양극화될 전망이다. 오는 2024년에는 소득 상위 20%(88.4세)와 하위

20%(81.5세)차이가 6.9년까지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 안소영 연구원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사망률 격차가 최근 수십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또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수명'도 이같은 경향을 보인다. 건강수명은 사망과 유병을 종합한 건강 수준을 두루 보여주는 지표로 쓰인다.

지난 2015년 기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11.33년

으로 추정됐다.

경제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은 소득 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나타났다.

수도권·광역시와 지방 사이에 기대수명이 차이났다. 이같은 차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83.3세)로 집계됐다. 반면 전남은 80.7세로 서울과 2.6년 차이가 났다.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도 서

울(69.7세)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64.3세)으로 서울과 5.4년 차이났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존재했다.

부산 북지방인 우리마을과 부산시가 사상구 확장동, 동구 범일 5동, 영도구 동삼 3동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국내 첫 마을 단위 건강역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소득이 100만원 넘는 집단보다 3배 가까이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유병률이 높았다.

안 연구원은 "세계적으로도 소득이나 지역 등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건강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일상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남대 동물병원 조감도.

'반려동물 천만시대' 전남대 호남 최대규모 동물병원 신축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전남대학교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 호남권역 최대 규모 의 첨단 의료설비를 갖춘 동물병원을 신축한다.

전남대 동물병원은 연면적 6000㎡, 지하 5층, 지상 1층 규모로 현재의 수의대 2호관 자리에 건설한다.

1층은 외래진료와 휴게편의시설, 2층은 특화 검진 및 재활·입원시설, 3층은 멸균·수술실 등 청정구역, 지하 1층은 MRI·CT 등 영상검진 구역이 들어선다.

4~5층은 동물의료 연구와 교육시설을 배치해 다차원적인 의료·교육 융합시설로 이용한다.

올해 2월 착공해 2021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남대 동물병원장은 그동안 연간 4000~5000건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공간이 협소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 공간으로서도 한계를 보였다.

손창호 동물병원장(수의대 학장)은 "첨단 의료장비와 최신 수의학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신진국형 동물의료 기술연구 등 임상수의학 발전을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임상수의사를 양성하는 동물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전문가 28% "1년 후 서울 집값 떨어진다"

KDI,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전문가 설문 조사

9·13 대책의 여파로 서울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28%가 1년 후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KDI 경제 동향 1월호에 실린 2018년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2%가 1년 후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봤다. 지난 3분기 이 수치는 18.6%를 기록했었다.

1년 후 서울 집값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 보는 비율은 31.1%였다. 이 역시 전 분기(26.5%)보다 상승했다. 결국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년 후 서울 집값의 수준을 현재와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

승률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33.0%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3분기 이 비율은 7.8%에 불과했다. 상승률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47.8%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90.2%에서 크게 축소된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에 대해선 1년 후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응답한 비중이 79.9%로 전 분기(51.0%)보다 크게 올랐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0.4%로 전 분기(49.0%)보다 낮았다.

현재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의 경우 비수도권은 서울과 달리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 분기(52.9%)보다 확대된 67.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7~19일 학계·연구원·금융기관·건설사 등 전문가 100여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화폐 수명, 1만원권 평균 10년·5천원권 단명

현금 이용 줄어 과거비 연장

시중에 떠도는 화폐의 유통수명이 짧게는 3년 반에서 길게는 10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며 화폐 수명은 과거에 비해 더 길어졌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행권 유통수명은 권종별로 1만원권이 121개월(10년1개월)로 가장 길었다. 1000원권은 52개월(4년4개월)로 뒤를 이었고 5000원권은 가장 짧은 43개월(3년7개월)로 조사됐다. 주로 소액 결제에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액면이 낮은 화폐가 손을 더 많이 타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은행권 유통수명은 신권이 발행된 이후 손상으로 더 이상 이용이 어려워져 창구로 환수될 때까지 경과된 기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은은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를 추산했다.

지난 2009년 6월 첫 발행된 5만원권은 이번에 정확한 수명은 측정

되지 않았으나 1만원권보다는 길 것으로 추정됐다.

화폐 유통수명은 길어졌다 현금 이용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1000원권 지폐의 수명은 지난 2011년 38개월(3년2개월)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기준 14개월(1년2개월) 더 늘어났다. 5000원권의 수명도 같은기간 40개월(3년4개월)에서 3개월 연장됐다. 1만원권은 2011년 유통수명이 추정되지 않아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1000원권의 유통수명은 미국 1달러(70개월)짜리보다는 짧았으나 유럽연합의 5유로(17개월), 일본 1000엔(18개월) 등보다는 길었다. 1만원은 호주 20달러(134개월), 영국 20파운드(113개월) 화폐에 이어 수명이 긴축에 속했다.

한은은 "은행권 유통수명이 늘어난 것은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며 "한은의 돈 깨끗이 쓰기 홍보활동에 따른 이용습관 개선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착공해 2021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남대 동물병원장은 그동안 연간 4000~5000건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공간이 협소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 공간으로서도 한계를 보였다.

손창호 동물병원장(수의대 학장)은 "첨단 의료장비와 최신 수의학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신진국형 동물의료 기술연구 등 임상수의학 발전을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임상수의사를 양성하는 동물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1층은 외래진료와 휴게편의시설, 2층은 특화 검진 및 재활·입원시설, 3층은 멸균·수술실 등 청정구역, 지하 1층은 MRI·CT 등 영상검진 구역이 들어선다.

4~5층은 동물의료 연구와 교육시설을 배치해 다차원적인 의료·교육 융합시설로 이용한다.

티웨이항공, 대구·무안 출발

일본 규슈 노선 '1+1 이벤트'



티웨이항공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대구와 무안에서 출발하는 규슈 노선 1+1 이벤트를 진행한다.

13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번 1+1 이벤트는 2명 이상 왕복 운임 결제 시 프로모션 코드 '2019'를 입력하면 50% 할인이 적용된다.

대상은 무안~오이타, 대구~사가, 대구~구마모토 총 3개 노선이 다.

여행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30일까지이다. 일부 제외 기간이 있

다.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히 티웨이항공이 대구에서 출발하는 일본 구마모토와 사가 노선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구 간 일정이라도 1+1 운임 할인이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일본 규슈 지역에서만 총 11개 노선(인천~후쿠오카, 대구~후쿠오카, 인천~사가, 대구~사가, 부산~사가, 인천~오이타, 부산~오이타, 무안~오이타, 인천~구마모토, 대구~구마모토, 무안~기타큐슈)을 운항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LCC 중 21개 최다 일본 노선을 운영하는 티웨이항공과 더욱 편리하고 알찬 일본 여행을 계획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Lotto 제 841회차 당첨결과 (2019년 1월 12일 추첨)

5 11 14 30 33 38 + 24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7	1,116,095,714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88	35,934,900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일치
3등	2,490	1,269,98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9,648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901,965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약정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